

# 담양군, 친환경 농산물 적극 육성 판로 확대 '시동'

## 고품질 대숲맑은 쌀 적극 홍보 친환경 생산단지 확대 조성 유기질비료 육묘 상토 지원 농업인단체 협력관계 강화

담양군이 '대숲맑은 담양쌀' 등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에 적극 나섰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농산물의 고급화 전략에 따른 수출 전략 작물 육성 및 내수 시장 선점을 위해 쌀 및 시설원에, 한우 등에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이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대숲맑은쌀 계약

재배와 재배 농가의 조직화를 통해 품질을 높이고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대숲맑은 담양쌀'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유기농·무농약 쌀을 재배하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해 대도시 공공급식 판로 확대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유기질 비료(4억7200만 원) 및 새끼 우렁이(2억3300만 원), 수도용 육묘 상토(3억3100만 원) 등의 사업으로 친환경 쌀 생산을 지원한다.

시설원에 분야에서는 딸기 재배 농가에 우량 육묘 보급을 위한 육묘장 설

치 지원, 친환경 실천 농가 자율사업 지원 등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고 농업회의소·친환경 농업인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와도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 농산물이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과 고품질화에 더욱 매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남도사랑화순군봉사단

지난 20일 남도사랑화순군봉사단(회장 조준성)이 청풍면 저소득층 가구를 찾아 '행복바르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하 '행복바르기 사업') 봉사활동을 펼쳤다.

23일 화순군에 따르면 행복바르기 사업은 전남도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으로 남도사랑화순군봉사단이 선정되어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 도배·장판 등을 교체해 주는 활동을 전개한다.

대상 가구는 화순군자원봉사센터, 화순교육지원청에서 신청받아 사전 답사 후 4가구를 선정했으며 이날 봉사활동에는 남도사랑화순군봉사단 회원 13명이 참여하여 대상 가구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남도사랑화순군봉사단 회원들이 지난 20일 청풍면의 한 가구를 찾아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화순군 제공

##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영광군, 8월 9일까지 접수

영광군은 오는 8월 9일까지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야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가에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 대상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등 3개 품목이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업(법)인 중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대상 축종을 생산해 왔으며 2023년에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가 귀속된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으로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받게 된다. 올 하반기에 결정되는 조정계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축사 소재지 읍면 산업개발팀에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 담양군보건소 이전신축, 통합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 2025년 3월 착공 목표로 추진

담양군이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통합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이전신축에 들어간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보건사업이 진료 기능 중심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예방 중심 사업으로 확대 전환됨에 따라 보건소의 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와 역할의 확장, 주민들의 건강요구권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전 신축을 계획했다.

새롭게 재탄생할 보건소는 천년의 문

과 대나무박물관 사이인 담양읍 천변리 400-1번지 일원에 들어서 주변 시설과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사시사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산책하듯이 들르는 일상 속의 보건소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동서남북 사면에서 접근이 쉽도록 다양한 접근 동선을 고려했으며, 남녀노소 누구든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저층으로 구성했다.

하늘가든과 중정 마루를 통한 산책과 휴식, 소통, 강의, 이벤트 등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고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해 치료와 더불어 휴식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군 기본계획상 유원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지 일부를 공공청사로 변경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지난 6월 착수했으며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등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건축심의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2025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 화순군, 박동창 맨발걷기 건강 전도사 초청 강연

###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4일 오후 3시부터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 군민 행복아카데미 제5회차 강사로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을 초청해 '맨발로 걷는 건강한 삶'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박동창 회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글로벌 금융연구소장, KB금융지주 부사장 등을 역임한 금융인 출신으로 업무 스트레스로 건강이 좋지 않던 시절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을 회복

한 경험을 바탕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책을 쓰며 맨발 걷기 운동을 국내에 소개한 선구자이다.

지금도 맨발걷기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맨발 걷기 운동 대중화에 앞장서 '맨발걷기 전도사'로 널리 알려졌다.

박 회장은 이번 강연에서 맨발 걷기를 통한 질병 개선 효과와 건강 유지 비결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군민행복 아카데미는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매월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강을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평생교육팀(061-379-3351-2)에 문의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지자체마다 황톳길 조성 등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 운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장성군, 점포경영 개선 등

장성군이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원은 △점포 경영 개선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등 4개 분야다.

점포경영 개선 지원사업은 간판·내부 인테리어 시설 개선과 제품 포장재 등 홍보용품을 지원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50% 내 최대 500만 원 한도다.

2021년 7월17일 이전 개업해 3년 이상 영업을 경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 임대료 지원 대상은 2021년 7월 16일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이다. 1년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용보증 수수료는 보증기간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전에 동일 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 없이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시점에 직접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신청은 이달 29일부터 8월1일까지 4일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장성군 일자리경제실로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재산세 25만 원 초과 등 일부 지원 제외 요건을 완화해 추진한다"며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 장마철 벼 병해충 방제 당부 영광군, 초기 방제 중요 강조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이 최근 장마철 잦은 비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잎집무늬마름병(문고병), 도열병 등 발생이 우려되고, 흑뚝나방, 흰등멸구 등 비래해충이 관내 농경지에서 발견됨에 따라 군에서 지원하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23일 영광군에 따르면 7월 기상현황을 살펴보면 강수량이 121.2mm로 전년대비 171mm가 적게 내렸지만 강우일수는 12일로 작년과 같아 일조시간이 평년대비 24시간 이상 적어 벼 병해충 발생조건이 최적화된 상태이다.

지나해 높은 발생밀도로 피해를 주었던 흑뚝나방이 관내 해안가 농경지를 중심으로 발견됨에 따라 예방 강화 및 초기 방제를 통하여 발생 밀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윤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벼 출수기에 발생하는 벼 병해충은 상품성, 수확량, 수익성과 직결되는 만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출수기 전·후 병해충 공동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